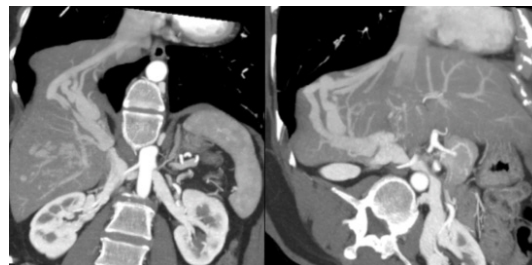


간 내 문맥전신선트 1예

동강병원 내과, 영상의학과

*최재원, 송희진, 천종운, 정창길, 서금수

서론: 문맥전신선트(portosystemic shunt)는 간 내 문맥분지가 굴곡관을 거치지 않고 간정맥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드문 질환이다. 선천적인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독성 대사물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문맥전신순환 뇌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암모니아수치 상승, 뇌병증, 심한 복통 등 유의한 질병 상태가 동반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상기질환이 발견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55세 여자가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4년 전부터 우상복부 및 심와부의 둔통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아 지켜보던 중 내원 3일 전부터 통증이 점차 증가하여 본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다. 내원 2년 전부터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지남력 혼동과 졸음증이 발생하여 신경과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신체진찰에서 특이소견은 없었고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6,000/ μ L, 크레아티닌 0.73 mg/dL, AST/ALT 20/16 U/L, 총빌리루빈 0.5 mg/dL, 암모니아 40 μ mol/L로 확인되었다. 위내시경에서 경도의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소견이 있었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문맥과 우측 및 중간 간정맥의 선트가 발견되었다.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를 포함한 위장관용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다. 발견된 선트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당장 중재적 시술을 하여 얻을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적관찰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의식변화 등 이상 증상은 없었고 혈액검사에서의 수치 변동도 없었다. 뇌병증 및 심한 복통의 발생, 암모니아수치 상승, 추적 영상검사에서 선트크기의 증가 등이 확인되면 색전술 등으로 치료할 예정이다.



알로에 베라에 의한 독성간염

대전 선병원 ¹내과, ²병리과

*김동민¹, 이정훈¹, 조남열¹, 이계성¹, 강현모¹, 이미선², 남관우¹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수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알로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알로에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생약제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최근 여러 문헌보고는 알로에 베라에 의한 독성간염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알로에 베라에 의한 독성간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특히 병력 없는 21세 여자는 체중감량 목적으로 알로에 베라를 복용하였다. 복용기간은 4주로 황달은 없었다. 자가면역질환, 대사성질환과 감염의 증거가 없었고 RUCAM 점수는 9점으로 'certain'이었다. R ratio는 15로 'hepatocellular'의 간손상 유형을 보였다. 간 조직검사에서 간내담관의 병변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지방 축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간문맥계의 염증세포의 축적만 보였다. 이상에서 알로에 베라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알로에 베라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도 간 손상의 원인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알로에 베라에 의한 독성간염 1예가 있어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